

주민등록증 발급, 이제 학교에서

전주시, 오늘부터 12일간 고교 방문 발급서비스

전주시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31까지 12일간 전주시역 2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9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발급 대상인 만 17세 고교 재학생들의 학업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특수사책이다.

이에 따라, 전주 해성고를 시작으로 각 학교별 방문일정에 맞춰 구청과 동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발급서비스팀이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한다.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전주 27개 학교의 834명의 고교생이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찾아가는 가을, 교정을 걸으며

한편,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은 국민이면 누구나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자연 기간

선선한 날씨가 지속된 15일 전북대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이 가을빛으로 물든 교정을 걷고 있다.

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며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형 남북교류협력 로드맵 만들기 본격화

시, 18일 실무기획단과 설명회

전주시가 드론축구와 전주국제영화제 등을 연계한 문화교류를 필두로 남북교류사업을 이끈다.

전주시는 남북평화 공존시대를 맞아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한 '전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8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기획단(단장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과 직원 60여명이 참여하는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방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최근 남북교류사업 추진방향이 일회성·이벤트성 사업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보탬이 되고 전주시민의 특화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급변하는 남북 및 북미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참석자들이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에

서 사업추진 절차를 비롯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각 사업들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여건조성 시 속도감 있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세계 최초 전주시가 개발한 드론축구의 북한 시연 행사 △전주국제영화제에 북한 영화인 초청 등 문화교류 중심의 남북교류사업들을 발굴했다.

또,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전부 개정할 바 있고 평양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공연을 전주에서도 유치하기 위해 통일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단장을 맡고 있는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은 "통일은 곧 경제"라며 "새롭게 모색되는 남북교류사업은 일방적·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남과 북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남북모두에 이익을 주는 교류 사업들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전국체전 전주시청 선수단 격려

전주시의회는 15일 자정경 경륜장과 완산수영장을 방문해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사이클과 수영 종목에 참여한 전주시직장운동부 출전선수단을 격려하고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를 응원했다.

이날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을 비롯한 백영규 행정위원장, 고미희 복지환경위원장,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 등은 감독과 출전선수들의 손을 맞잡고 격려하며 그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한 만큼 한명의 부상자도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술 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주시 체육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기회로 삼고 매 경기 필승의 각오로 임해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전주시의회는 체육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강동화 부의장과 김현덕 운영위원장은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하여 태권도 출전 선수단을 격려했다. /송효철 기자

가을 축제, 문화누리카드

전북문화관광재단, 진안홍삼축제 등 이용 가능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문화누리카드를 진안홍삼축제와 순창장류축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진안홍삼축제는 18일부터 21일까지 마이산북부 일원에서 진행되며 가래떡뽑기체험, 홍삼잔 탕 썰기 대회, 직업체험프로그램, 카데일쇼 등 행사장 내부 체험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순창장류축제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열리며 장류주먹밥 모자이크 만들기, 떡볶이 파티, 매운맛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이 밖에도 등록된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연·영화·전시·국내 4대 스포츠경기 관람을 비롯, 여행, 숙박, 문화체험, 고속·시외버스, 철

도, 약점점, 각종 체육시설과 체육용품 판매점, 관광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도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1,631개소(전국 27,174개소)가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카드 사용처와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7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음반, 도서 구매, 국내 여행과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18년 지원 금액은 7만원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비빔밥축제서 '테이블웨어 특별전' 연다

전주시, 경기 이천시·일본 가나자와시 등 초청 전시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명과 같은 테이블웨어 산업 육성에 나선 전주시가 세계적인 공예도시들과 교류를 통해 전주시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8전주비빔밥축제'에 유네스코 공예창의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와 경기도 이천시를 초청해 전주의 맛에 뜻을 입히는 테이블웨어 전시 특별전을 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테이블웨어 전시전은 전시와 체험, 그리고 산업전으로 구성·운영되며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향교문화관 및 향교 일원에서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먼저, 가나자와의 공예품에 전주음식 명인, 명가의 음식을 담아내는 콜라보 전시, 이천시의 도자공예 전시, 한국도자기의 생활도자 전시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관람객들의 체험행사로 는 가나자와의 대표 공예인 금박공예와 금속

공예, 이천의 도자 체험 등이 마련되며, 산업전은 이천 및 전주의 공예작가 작품전시와 포토존 운영, 작품 판매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테이블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각 공예도시들의 사례발표와 토론 등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미니 세미나도 열리며, 유네스코 공예창의도시들과 전주음식과의 상호보완을 위한 MOU도 진행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21일까지 7개업체 유럽무역사절단 파견

전주시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전주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총 3억원의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총 1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파

견과 해외 유망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전북KOTRA지원단과 함께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 동안 고려자연식품 등 7개 업체를 2018 전주시 유럽 무역사절단으로

유럽에 파견했다.

이들 기업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스위스 취리히의 2개 무역관을 방문해 무역관별 해외바이어 상담·발굴 및 현지 시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중소기업 해외수출 집중 지원을 위해 올해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